

건협 새해 총 예산 328억여원 확정

1997년 정기대의원총회사
임기 만료된 임원선출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해 11월 27일 개최하고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328억여원으로 확정·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새해의 건강관리사업 목표 216만여명을 비롯하여 보건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9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 1년간 협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공이 큰 유관기관 인사 및 단체(보건복지부 보건관리과 박노만 보건주사, 상업은행 고객업무부, 의사신문 김기원 기자 외 21명)에 대한 회장 감사장 수여와, 협회

직원 중 20년 장기근속자(남서중 건강증진국장 외 3명), 10년 장기근속자(정희상 인천지부 보건교육과장 외 23명)에 대한 협회장 표창도 있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97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부회장·이사 등 임원진 개선이 있었는데, 심운택 대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뽑고 4명의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임한중 회장과 김상인·이순형 부회장 등을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임원들은 다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선임되었다.

한편 이번 임원선출에서는 김은우 이사 등 3명의 이사를 제외

한 기왕의 이사진을 전원 유임시키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임한중

◎ 부회장 : 김상인(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장), 이순형(서울의대 학장)

◎ 이사 : 민헌기(전 서울의대 교수), 심운택(전 충남의대 보건대학원장), 이승휘(경기후생병원장), 안상욱(전 건협사무총장), 홍창의(서울중앙병원 소아과장), 고영희(전 국군통합병원장), 고응린(한양의대 명예교수), 진동식(전 연세대 부총장), 김완태(명지대 명예교수), 박승철(고려의대 감염내과 과장), 엄용태(고려의대 교수)

◀40

이대 보건교육과 학생, 서울지부 방문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과 학생 및 교수진 20여명은 지난 해 11월 15일, 서울지부를 방문하고 협회 보건교육 및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지부 의원의 감사시설을 견학했다.

부산지부, 운동처방기구(SYBEX) 도입

부산지부는 지난 해 11월 20일부터 운동처방기구를 도입하여 내원자들의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부, 복군 양호교사 간담회



제주지부는 지난 해 11월 26일, 지부 회의실에서 복군 관내 양호교사 초청간담회를 갖고 학생 건강검사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북지부, 청주 MBC와 건강좌 공동 개최



충북지부는 청주 MBC(문화방송)와 공동으로 건강관리 공개

건협소식

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해 11월 15일 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있었던 이 공개강좌에서는, 청주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방부 연세대의대 교수가 성인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대전충남지부, 공개강좌·강연회 등 실시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해 11

월, 대전택시 조합원, 대전 동양 백화점 직원, 빙그레 논산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과 치료, 성인병 조기검진의 필요성, 구강위생, 음주와 건강 등에 대한 공개강좌와 강연회를 실시했다.

전북지부, 주민 건강검진



전북지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전북 장수군 장수교회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에 대한 건강 검사를 실시했다.

경남지부, 울주군·진해시 의보조합과 무료 검진

경남지부는 지난 해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울주군 의료보협 조합과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한 무료 성인병 검진을 실시했다.

3일 온산읍 사무소를 시작으로 130여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 무료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간기능·빈혈·심장·자궁암·간염·홍부 X선 촬영 등의 검진이 실시되었다.

제 6 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단 해단식

41 ▶



제 6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단 해단식이 지난 해 12월 12일 협회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해단식에는 건협 임한중 회장과 성정용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오대규 보건국장, 보건정책과 장종원 서기관, 가톨릭의대 조승렬 교수 등을 비롯한 관계인사와 건협 직원들이 참석했다.

임한중 회장은 식사를 통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

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기생충관리와 국민 보건에 지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광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대규 보건국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우리 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에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각계 인사와 협회 직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회장의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감사장 : 조승렬(가톨릭의대 교수), 이준상(고려의대 교수), 주종윤(계명대의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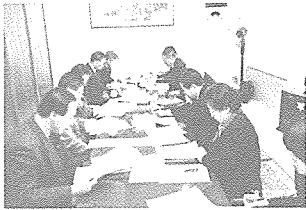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 채종일(서울의대 교수), 정해덕(서울강서구 보건소), 남상도(건협 전북지부 사무국장), 충북 괴산군 증평출장소(단체표창) 외 28명

◎ 협회장 감사장 : 홍성태(서울대 기획실 교수), 박기준(국립보건원 기획지원부장), 장종원(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서기관), 오양섭(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주사), 임명선(통계청 통계기획국 통계조정과 사무관), 허학동(부산 가락동통장) 외 17명

◎ 협회장 표창장 : 황석중(건협 본부 보건교육국), 한은희(건협 서울지부 주임) 외 13명

경남지부는 또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해시 의료보험조합과 합동으로 시내 4개 지역주민 중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검진도 실시했다.

건협, 홍보자문 및 편집 전문위원회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해 12월 9일, 홍보자문 및 편집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우(전 이화여대 교수)·최원영(전 가톨릭의대 교수)·이순형(서울의대 학장) 등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가했으며, '98년도 협회 보건교육 사업 및 건강소식 편집에 관한 자문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왔던 김은우 위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위원장으로 최원영 위원을 선출했다.

'97. 한·중 기생충 학술 워크숍 개최

1997년도 한·중 기생충 학술 워크숍이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있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이 워크숍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 Feng-Zheng

건협, KBS 장기기증 캠페인 참가

건협, 전국 34개 고등학생 2만7천여명 무료 소변검사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의 장기기증 캠페인에 참가해, 전국 34개 고등학교의 2만 7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이 검사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이번 검사는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국 초·중·고 학생 무료 소변검사 실시를 앞두고, 우리 나라의 신부전증 발병 예상 환자수와 만성 신부전증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KBS 1라디오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공동 개최한 이번 장기기증 캠페인은,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실질적인 장기기증 등록자가 월 평균 5백여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이 캠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신부전증의 예방을 통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학생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

한편 이번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이 발견된 학생들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투석비 및 수술비도 지원된다고 한다.

본 캠페인과 관련하여 KBS 1라디오는 지난 해 11월 27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까지, 소변검사 결과와 목적, 캠페인의 의의 등에 관한 방송을 실시했다.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해에 진행되었던 중국 현지(광서 장족 자치구) 기생충감염 공동 조사연구 결과 발표 등, 한국·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효과적인 기생충관리를 위한 공동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중국 예방의학과학원 기생충 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중국 등의 기생충 관련학자